

시바오 세계

十方世界

현대불교 9
buddhanews.com
2008년 6월 11일 수요일
불기 2552년 제 683 호

민추본, 평화통일순례

분단 현실 넘어, 평화통일로!



통일을 발원하며
참가자들은 도라산 전망대로 가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야 했다. 민통선 내 지역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자들은 국방부에 명단을 제출하고 민통선 경계 검문소에서 다시 신분증 검사를 거쳐야 한다.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통일을 발원하는 '깜짝 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불상도 경전도 없이 눈앞에 펼쳐진 북녘 땅을 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웠다.

과정에 민통선 내에서 정착하고자 지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뢰 피해를 입었다. 팔·다리,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가며 일궈온 논밭인 것이다.
아직도 통일촌을 비롯한 민통선 내 마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이 아닌 곳은 모두 지뢰밭인데다 비무장지대 깊숙이 자리 잡은 대성동을 제외하고는 세금 혜택도 못 받는다. 또 개간 해놓은 땅의 원 주인들이 땅문서를 들고 찾아와 소유권을 주장,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례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통일' 이전에 이들은 삶의 터전이, 공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찬 앞길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할까,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은 그 어느 코스보다 도라산역을 찾았을 때 즐거워했다. 미래로 나아갈 이곳의 철길을 걸으며 "앞으로 통일 한국의 주춧돌이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지혜를 심어 주시어 우리 민족의 드높은 기상이 경의선 철도를 따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라산 전망대는 북한 땅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다. 육안으로 개성 송악산과 시내가 보일 정도다. 바로 코앞의 개성을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기분. 참가자들은 참담함을 느꼈다. 북한 비무장지대 마을 기정동에 설치된 거대한 인공기와 남쪽 비무장지대 마을 대성동에 설치된 태극기가 서로 마주 보며 경장하듯 펄럭이는 모습은 우리의 분단 현실을 일깨워줬다.

철마는 대륙으로 달릴 준비가 됐다!
통일촌에서 버스로 약 10여분 정도면 남한 최북단 철도역인 도라산역에 갈 수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철도의 시발역이기도 한데, 이후 TSR(시베리아횡단열차)과 TCR(중국횡단열차)로 연결, 유럽대륙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한창인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2002년 개성까지 개봉된 화물열차가 하루 1번 운행되고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역까지 하루 4번 열차가 운행된다.
도라산역은 '통일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분단으로 반도국가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에는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책, 철조망 없애자
이밖에도 평화통일순례단은 실향민들의 애향을 담고 있는 임진강, 울곡 이이가 머물렀던 정자 '화석정'과 세종대 명재상 황희의 유적지 '반구정' 등을 돌아보았다. 모두 파주시 안에 있는 유적지들이다. '화석정'과 '반구정'이 분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이들 유적지 부근을 살펴보니 남한군사분계선 인근은 그 어디를 가도 철책과 철조망이 눈에 띄고, 삼엄한 감시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진짜 우리의 현실을, 현실을 봐야 미래가 보인다. 현재 분단 현실을 잘 챙겨야만 아득하고 추상적인 '평화통일'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속 '삶'의 질곡, 통일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여느 시골마을과 다를 게 없이 평화롭고 따스한 이 마을은 이름이 '통일촌'이다. 이곳은 재래종 '장단콩'을 복원, 생산해내고 있다.
통일촌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꽤 고생스러운 역사를 거쳐야 했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민통선 내 황무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통일'의 실체가 잘 와 닿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철책과 철조망, 삼엄한 '안보' 아래에서 갈라진 채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연한 '분단'이라는 문제를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5월 31일 '통일정도를 찾아서 떠나는 2008 평화통일순례' 길을 마련했다. 7월까지 5차례 평화통일순례가 진행되는데, 이번은 그 두 번째였다. 이번 평화통일순례에는 민추본 사무처장 성목 스님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박석을 사무의장, 간접이 이동삼 명인,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8명 등 총 31명이 참가했다. 모든 일정은 X안녕, DMZ의 저자 최현진씨의 상세한 설명 속에서 진행됐다.



동일한의원
대수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코 한방 (韓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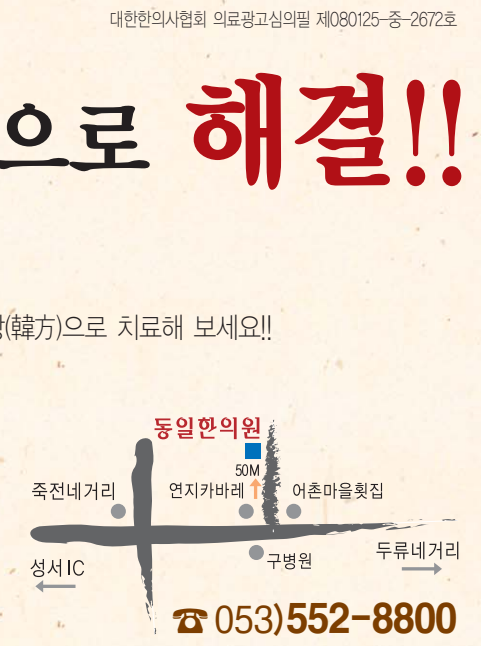
코막힘, 비염, 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 비염, 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원장 노동일
보건의학박사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080125-중-2672호